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울산바위**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울산바위를 지켜낸 양양 사또의 지혜로움을 배운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설악산, 금강산, 울산, 울산바위, 양양, 산신령, 사또, 유래담**

한국문화  
• **목표** : 설악산에 왜 울산바위가 있는지 안다.  
• **요소** : 설악산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단어** : 설악산, 금강산, 허겁지겁, 느릿느릿  
• **표현** : 허겁지겁 금강산으로 갔어요.  
느릿느릿 금강산으로 갔어요.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울산바위' 이야기예요.

한국에는 산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산이 있어요. 하나는 설악산이고, 다른 하나는 금강산이에요. 그중 설악산에는 울산바위가 있어요. 설악산은 양양이라는 지역에 있고, 울산은 양양보다 더 남쪽에 있어요. 설악산에 있는 바위가 왜 울산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울산바위'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아주 먼 옛날이야기예요. 긴 흰 수염이 멋진 산신령이 금강산에서 도를 닦고 있었어요. 산신령은 금강산을 좋아했지요.

어느 날 산신령은 금강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도를 닦았으니 이 산에 작은 보답을 해야겠군. 울창한 나무 사이에 바위 봉우리를 일만 이천 개쯤 만들면 멋지겠지?”

하지만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산신령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아주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금강산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바위들은 금강산으로 모두 모여라!”

산신령의 목소리를 들은 바위들은 신이 나서 금강산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제주도 한라산 바위들도 허겁지겁 바다를 건너 금강산으로 갔어요. 울산에 있던 큰 바위만 느릿느릿 북으로 북으로 길을 떠났어요. 울산바위는 몸집이 아주 크고, 조금 게을렀거든요. 울산바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지만 겨우 설악산에 도착했어요. 이미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얼마나 더 가야 금강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쉬고 가야지!”



## 이야기 들려주기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울산바위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강산에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를 다 만들었다. 바위들은 그만 와도 된다.”

“아유, 진작 서둘러서 곧장 갈걸…….”

울산바위는 실망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울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 그냥 살까? 금강산도 좋겠지만 설악산도 참 아름다운걸.”

느림보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울산에 욕심쟁이 사또가 새로 오게 되었어요. 그 사또는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눌러앉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다니! 그 큰 바위를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아깝고. 이를 어쩐담.”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던 사또에게 문득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양양 사또를 만나러 가야겠다! 여봐라, 어서 양양으로 갈 준비를 해라.”

울산 사또는 설악산이 있는 양양으로 갔어요. 양양 사또는 울산 사또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울산사또님, 먼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 고을에 설악산이 있지요? 설악산에 있는 바위 때문에 왔습니다.”

“허허, 설악산 바위는 옛날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하지요. 구경하시겠습니까?”

양양 사또의 말에 울산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흥! 원래 울산에 있던 멋진 바위가 이곳 설악산으로 온 것이죠. 산신령님이 바위들을 불러 모았을 때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눌러앉게 되었지요.”

“그 이야기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우리 울산바위 덕분에 설악산이 아름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울산바위를 공짜로 쓰고 있으니, 이제부터 돈을 내야 합니다.”

양양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사또, 저도 울산바위 때문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울산바위는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이곳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설악산에는 멋진 바위가 많으니 자리만 차지하는 울산바위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바위를 가져가라고요?”

“네, 그게 어렵다면 자릿값을 내면서 그냥 설악산에 두셔도 됩니다.”

양양 사또의 말에 울산 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산 사또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로움에 크게 감탄했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울산바위’ 이야기, 잘 들었나요?

금강산에 사는 산신령이 멋진 바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자 바위들이 어떻게 했지요? 맞아요. 다들 ‘허겁지겁’ 금강산으로 갔어요. ‘허겁지겁’은 빨리 서두르는 모습을 흉내 낸 말이에요. 울산바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느릿느릿’ 금강산으로 갔어요. ‘느릿느릿’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흉내 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재미있지요?

느릿느릿 가던 울산바위는 결국 설악산에 남게 되었어요. 금강산도 무척 아름답지만, 설악산도 굉장히 높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설악산 꼭대기에는 여섯 개의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 아주 높답니다. 이게 바로 울산바위예요. 그래서 설악산 어디를 가든지 이 울산바위가 잘 보인답니다. 울산바위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울산바위’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욕심 많은 울산 사또는 양양 사또에게 울산바위를 사용했으니 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양양 사또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필요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지요. 오히려 자릿값을 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양양 사또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쫄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